

“재생의료 분야 연구 전념해 일본 뛰어 넘겠다”

윤택림 전남대병원교수 정년퇴임



“아직도 연구 열정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체력은 과거보다 더 약해졌지만, 지력은 아직도 건강해서 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현재의 열정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 등 고관절 분야 전문가 윤택림(사진) 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31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최근 정년퇴임했다.

지난 1992년부터 전남대병원에서 1만여 건의 수술을 집도한 윤 교수는 2004년 호주에서 개최된 ‘두부위 미니절개에 의한 인공관절 시범수술’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등지의 의료진들에게 새로운 수술법을 교육·전수했다. 지난 2020년에는 국내 최초로 고관절 재치환술 환자들에게 맞춤형 3D프린팅 임플란트 이식수술에 성공했다.

특히 차세대 정형외과용 융합의료기기 산업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광주시 테크노파크 부지에 센터를 건립, 임상데이터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 융합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윤 교수는 퇴임 후에도 전남대병원에서 명예진료 교수로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 진료와 수술을 지속할 계획이다. 윤 교수는 “줄기세포, 엑소좀(exosome), 면역세포 등을 이용한 난치질환의 치료와 병의 예방에 중요한 항노화 관련 연구에도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지난 2월 첨단재생의료법의 법안 개정으로 인해 재생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가고 있는 일본이나 대만의 재생의료를 따라잡는 것이 다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윤 교수는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271편을 게재했으며, 학술연구와 더불어 고관절 수술법·수술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 등에 관한 특허 55개를 출원, 등록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녹색에너지연구원, 해상풍력 단지 착수보고회



재단법인녹색에너지연구원(원장황규철)이 지난 25일 신안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신안군 부유식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에는 주한 덴마크대사관, 해상풍력업계, 신안군,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사)신안부유식풍력산업협회, 신안군의회 등에서 20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이기운 녹색에너지연구원 풍력·해양연구실장이 신안군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용역업체가

전 인허가 검토 및 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어업 피해 영향조사 및 지역 수용성 확보 용역 등에 대해 착수 보고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신안군은 흑산도, 거제도 인근 해역에 10GW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위한 사전 인허가 및 타당성 검토, 단지설계와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영향조사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공존하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01@kwangju.co.kr

전남대 수의과대학 이진아 졸업생 하버드 의대서 에이즈연구 논문 발표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생 이진아(사진) 박사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인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에이즈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최근 사이언스지에 관련 논문을 발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박사는 2011년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마쳤다.

2016년부터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박사후과정 연구원으로 활동한 그는 2018년 하버드 의과대학 바이러스학·백신연구센터의 제임스 휘트니 교수팀에서 박사후과정 연구원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에이즈(AIDS) 관련 연구에 참여했다.

이 박사는 래서스 원숭이에 SHIV를 감염시킨 후, 항바이러스제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하여 만성 HIV 감염자의 임상증상 및 면역반응 등을 재현할 수 있는 동물 모델을 만들었다. 이 연구는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지 3월 호에 게재됐다. 한편, 이 박사는 보스턴 칼리지로 옮겨 선임연구원으로서 후속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트라우마센터 협약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위탁 운영 중인 광주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센터장 임성희)는 지난 25일 광주 트라우마센터(센터장 김명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활성화사업 진행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서상우)은 광주 서구 관내 지원경로당 90개소를 선정,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건강체조, 스포츠스태킹, 스마트 미디어, 웃음치료, 유양극장 등이다.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제공>

임형주, 영국왕립예술학회 저널에

신입 석학 대표 5인으로 소개



파페라테너 임형주(사진)가영국왕립예술학회(RSA)가 발행하는 유력 학술지 RSA 저널에 소개됐다고 소속사 디지털콘텐츠가 26일 밝혔다.

1783년 창간된 RSA 저널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 가입 승인된 전 세계 신입 석학회원 가운데 5명을 뽑아 소개하며 그중 하나로 임형주를 조명했다.

임형주는 지난해 12월 영국왕립예술학회 종신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 학회는 제도, 상업, 인문, 예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인물 가운데 이회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회원을 선정하고 있다.

저널은 그를 한국 파페라 가수이자 로마시립예술대학 소속 성악과 석좌교수로 소개한 뒤 그의 음악 활동과 국제 지선 기구 친선 대사로서의 활약 등을 전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⑦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⑧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⑨	30 KBS 뉴스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0 SBS 10 뉴스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빠뽀 좋아좋아 스페셜	30 살맛나는 오늘
⑪	05 불편해도 관참아(재) 10 시사기획 창(재)	00 역살 한 번 잡힐시다(재)	15 꾸러기 식자교실(재) 45 주니토니이야기(재)	00 애니갤러리 30 안녕 자동차 45 헬로키티 X
⑫	00 KBS 뉴스 12	15 신상출시 편스토랑(재)	00 12 MBC 뉴스 25 놀면 뭐하니?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휴먼다큐 마냥 이쁜 우리말
①	00 열린채널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②	00 KBS 뉴스 10 KBS네트워크특선 지명수배			00 뉴스브리핑
③	0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10 어린이동물터비 40 팔도밥상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5 인연(재) 30 TV 유치원(재)	55 기분 좋은 날(재)	
④	00 사사건건	00 스튜디오 K 스페셜 30 영생열병 산(재)	55 5 MBC 뉴스	00 시장의 품격 스페셜 55 닥터 365
⑤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00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제로 30 꿀잼 영화가 좋다	10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⑥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⑦	00 뉴스7 광주전남 40 토크멘터리	5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⑧	10 어쩌다 마주친 퀴즈 30 수지맞은 우리	30 월드 24 55 살리는 남자들		30 KBC 8 뉴스
⑨	00 KBS 뉴스 9		00 원더풀 월드(재)	00 골 때리는 그녀들
⑩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15 스모킹 건	20 대학체전:소년선수촌 스페셜 30 라디오스타	40 7인의 부활 -그 이전의 이야기
⑪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5 아이 러브 스포츠 40 김이나의 비인칭시점(재)		
⑫	00 KBS 중계식	40 KBS 재난방송센터(재)	1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00 칭기스칸 로드(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다이너스티 공룡수호대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30 숲이 그린 집(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만국경문록(재)	19:20 고향민국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귀하신 몸(재)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17:30 하프와 친구들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집트 -나일강의 전설, 아스완·아부심벨>
07:45 꼬마버스 타요	15:15 강신주의 장자 수업	21:35 한국기행
08:00 당동당 유치원	15:55 블루스	<남도 봄맞이 행3 부 고매위! 명이야>
08:20 웃기는 처음 영어	16:10 당동당 유치원(재)	21:55 왔다! 내 손주
08:50 뽕뽕뽕 부부만	16:30 페파 피그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9:05 골짜기와 처음 수학	16:40 마사와 곰	23:35 톰
09:20 인간이 되자!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55 꼬마버스 타요(재)	24:00 EBS 비즈니스 리뷰
10:30 한국기행(재)	17:10 웃기는 처음 영어(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7일(음 2월 18일 庚寅)

子 36년생 외형만 드러내도 의미는 충분하다. 48년생 평상시에는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움이 보인다. 60년생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듯하리라. 72년생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여 왔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84년생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96년생 상호 공조가 순탄함을 이끈다. 행운의 숫자 : 08, 84

丑 37년생 처음부터 짧은 인연임을 알고 대해야겠다. 49년생 절대적이라고 상정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61년생 매우 부담스럽고 벅찬 하루가 될 것이니라. 73년생 계획대로 조처한다면 성공의 길을 이끄는 열쇠가 보인다. 85년생 미루어 왔던 것을 진행하기에 시의적절하다. 97년생 예기치 않은 지출을 키우는 일이 터지겠다. 행운의 숫자 : 38, 89

寅 38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낫다. 50년생 함께 하되 굳이 상호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다. 62년생 분위기나 겉모습에 현혹된다면 큰코다칠 수 도 있다. 74년생 가장 담담히 있는 이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86년생 분명히 해둬야 뒤따라 있는 법이다. 98년생 임의로 인한 화근을 짓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4, 68

卯 39년생 일상의 체계에 충실하는 것이 옳다. 51년생 상대가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을 끊어 주어야만 효과적이다. 63년생 연쇄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오판할 수도 있다. 75년생 전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87년생 수용한다면 원만해질 수 있겠다. 99년생 고통의 끝에 달콤한 열매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5, 50

辰 40년생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52년생 상대의 속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64년생 가장 용이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낫다. 76년생 아무리 답답해도 나서지 말고 참자고 있는 편이 낫다. 88년생 커다란 관점으로 임해야 더욱 값진 수확을 얻게 되리라. 00년생 분명한 책임 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03, 58

巳 41년생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생소해 보일 수도 있다. 53년생 협참으로는 미진한 바가 허다하니 다른 방법을 택함이 현명하다. 65년생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 77년생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다 헤쳐 나갈 수 있다. 89년생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성사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01년생 예리한 관점으로 임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9, 63

午 42년생 부드러움이 강함을 능히 제어하는 법이다. 54년생 중차대한 실황을 포착하게 되는 기회가 있다. 66년생 오류를 찾아내서 잘 대처한다면 순항할 수 있겠다. 78년생 현실적이고 실리적으로 처리 하지 않으면 두근두근 할증을 피운다. 90년생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하겠다. 02년생 알면서도 빠져들 수 있는니라. 행운의 숫자 : 07, 52

未 43년생 과거의 잘못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55년생 형편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67년생 단순한 착각은 여러 가지 망상을 부르는 법이다. 79년생 필수적인 것을 생각하라 한다면 무리가 따르다. 91년생 응용의 묘리를 살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03년생 무리한다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위상이다. 행운의 숫자 : 24, 82

申 44년생 미진한 점이 있다면 대중 넘겨려 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밝히야 하느니라. 56년생 상호 간에 배려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68년생 공멸어 왔던 것이 분명하게 가닥이 잡힌다. 80년생 여태까지 했던 것은 헛수고였으니 다시 해야겠다. 92년생 갈구해 왔던 바가 실현될 것이다. 04년생 우회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23, 66

酉 45년생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현상이 좌우될 것이니 과정에 따른 성과의 차이가 크다. 57년생 점진적인 활동이 안정 궤도로 이끌 것이다. 69년생 피해를 볼 수도 있다. 81년생 운로는 좋으니 언행만 주의하면 된다. 93년생 특별한 이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05년생 원천적으로 금하는 것이 안전을 도모한다. 행운의 숫자 : 40, 96

戌 46년생 심도초에 비례해서 수확할 것이니 섬세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여야할 때이다. 58년생 돌이킬 수 없는 길목에서 있으니 판단을 잘 해야겠다. 70년생 신속히 정리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82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알라. 94년생 배후가 드러날 수도 있다. 06년생 보편적 가치가 기준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1, 70

亥 35년생 한 곳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47년생 눈앞의 일에만 급급해 한다면 멀리 내다볼 수 없겠다. 59년생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간다면 부를 이루는 원천이 되어 준다. 71년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83년생 표준과 전형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겠다. 95년생 보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32, 67